

고등학생의 진로상담 교육과 진로체험 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

백주경 · 천준협*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상담전공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High School Students

Ju Kyung Paik · Jun Hyep Chun*

Holistic Therapy Major,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Seoul, Korea

(Received February 26, 2019 / Accepted February 28, 2019)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schoo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Career counseling, Career and career experience, Career camp,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xperience, Field trips, University or major experience,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in Jeonju high school and Gunsan high school students (568 students), and then to analyz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its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problem solving, and future plan by high (a), middle (b), and low (c) groups according to satisfaction level. **Methods:** After the career counseling training, questionnaires were surveyed. **Results:**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 group than in the b & c groups by order of a>b>c group in the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problem-solving and future plan by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n career counseling, career and career experience, college or major experienc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classes ($p<.001$).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of career camp, and entrepreneurship and creative experience class was a> c> b group order.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 b, and c groups. Average satisfaction of field trip class showed a>c>b group order, and a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b & c group. **Conclusion:** The higher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shows higher self-determination efficacy of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problem solving and future plan.

Key words Career educ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formation, Creative experience, Job experience

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지역 고등학생 568명을 임의 선정하여 학교 진로교육(진로상담, 진로 및 직업 체험, 진로캠프,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 현장전학, 대학 혹은 전공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a), 중(b), 하(c)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진로교육 상담 후에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결과:** 진로상담, 진로 및 직업체험, 대학 혹은 전공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a>b>c집단 순이며, a집단이 b 및 c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캠프,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 수업의 만족도의 평균치는 a>c>b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a·b·c집단의 수치 간에는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현장전학 수업의 만족도 평균치는 a>c>b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a집단은 b와 c집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결론:** 진로교육의 만족도가 높으면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진로교육,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 진로체험, 직업체험

서 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주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Betz & Hackett(1981)는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 영역에 적용하여 진로 선택, 행동 및 개발 등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 Bandura(1986, 1989)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스스로 그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및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요인은 과거에 성공경험이 있을 때, 타인의 성취감, 자기 주변 사람으로부터 잘 할 수 있다는 언어적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기능의 강약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 효능이 아니며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진로교육의 강화를 지나서 자기효능감까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였다(Chang, 2013).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강화는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었고, 2013년부터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교육이 시작되었다(Choi, 2004; Jang, 2018).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2016~2020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진로교육의 체계성과 양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근래에는 진로교육의 실행 단계를 지나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하여 소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본다.

Lim(2005)은 학교의 진로교육활동 중에는 교과 및 활동에서의 진로교육, 강연참여, 학교 및 학과정보 탐색이 학업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Kim & Kang(2010)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교육지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에서는 유의성 있게 향상되었다. Choi & Kim(2012)은 중·고등학생의 진로 교육 경험이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 진로강연, 직업체험이 자기주도학습 태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Kim *et al.*(2014)은 중·고등학생의 진로체험이 진로 관련 특성 및 학업 관련 특성에도 발전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Choi & Lee(2017)는 부모와의 소통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한 매개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Kang & Yon(2017)의 2007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10년간 고등학생 대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논문 109편을 대상으로 하여 메타분석에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Paik *et al.*(2019a)은 지방학생들의 학교 진로교육 상담 후에 진로결정사항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부모님의 조언’이 28%, ‘학교의 진로교육’의 효과는 52.2% 높게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참여현황’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94.7%) 및 ‘진로와 직업’(94%)로 높았고,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서는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대학 혹은 전공체험’이 3.66점이었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Paik *et al.*, 2019b). Paik *et al.*(2019b)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교육 참여 후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Betz & Hackett(1981), Taylor & Betz(1983) 및 Bandura(1986) 등의 연구에 사용한 도구와 논리를 이용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로교육의 강화와 효과를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할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aik *et al.*(2019a) 보고한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및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중 (1) 진로상담, (2) 진로 및 직업체험, (3) 진로캠프, (4)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 (5) 현장견학 및 (6) 대학 혹은 전공체험, (7)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 학생의 활동별 만족도가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활동 만족도가 학생의 진로개발이나 학습태도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낼 수 있다. 연구결과는 진로교육 활동 유형별 효과성을 파악하여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유용하리라 판단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의 선정된 고등학교 1학년 312명, 2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설문지에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592부가 회수되었고,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24부를 제외한 총 56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학생들만 설정하였다(Paik *et al.*, 2019a).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

Table 1. Reliability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asurement tool

Items	Question's numbe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Goal choice	1, 2, 3, 6, 8, 9, 11, 14, 18, 20, 22	11	.88
Job information	7, 15, 19, 21, 23, 24	6	.77
Problem solving	13, 17, 25	3	.66
Future plan	4, 5, 10, 12, 16	5	.66
Total		25	.91

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Lee & Lee(2000) 및 Lee & Lee(2002)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Job information), 목표선택(Goal choice), 미래계획(Future plan),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4개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진로교육 활동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을 Jeong (2014)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진로교육 만족도는 각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학생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 평균값을 기본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전체 비율을 감안하여 상(a), 중(b), 하(c)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학교 진로교육 상담 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고, 고등학교 진로상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1) 연구를 수행하여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3) 진로교육 활동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Paik *et al.*(2019a) 보고한 고등학교 학

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및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하였다.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중 (1) 진로상담, (2) 진로 및 직업체험, (3) 진로캠프, (4)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 (5) 현장견학, (6) 대학 혹은 전공체험 및 (7)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활동별 만족도가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진로상담'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상담(career counselling)'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2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진로상담'의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4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목표선택(goal choice)' 및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경우에는 상·중·하집단 수치의 순서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정보(Job information)'의 경우 상집단은 3.53점, 중집단은 3.28점, 하집단은 3.30점으로 상집단이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미래계획(Future plan)'의 경우 상집단은 2.95점, 중집단은 2.77점, 하집단은 2.6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중·하집단 간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서,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전체 집단의 평균치 순위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는 '직업정보'의 경우 a의 수치는 b 및 c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고, b와 c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미래계획'의 경우 a의 수치는 b 및 c에 대해서 유의하였고, b는 c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전체 평균 만족도의 a의 수치는 b 및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진로상담'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서는 상집단의 수치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직업정보'와 '미래계획'에서는 상집단과 중·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Lee(2018)는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진로검사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와 자기결정성 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8)은 진로의사결정 집단 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또한 진로의사

Table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career counseling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168	3.57	.637	2.722	.067	-
	middle	188	3.42	.585			
	low	41	3.48	.635			
	sum	397	3.49	.615			
Job informations	high	168	3.53	.671	6.877	.001***	a>b, c
	middle	188	3.28	.644			
	low	41	3.30	.700			
	sum	397	3.39	.671			
Problem solving	high	168	3.38	.732	1.713	.182	
	middle	188	3.24	.711			
	low	41	3.36	.814			
	sum	397	3.31	.732			
Future plan	high	168	2.95	.661	4.817	.009**	a>b>c
	middle	188	2.77	.604			
	low	41	2.68	.691			
	sum	397	2.83	.644			
Average	high	168	3.53	.671	6.877	.001***	a>b, c
	middle	188	3.28	.644			
	low	41	3.30	.700			
	sum	397	3.39	.67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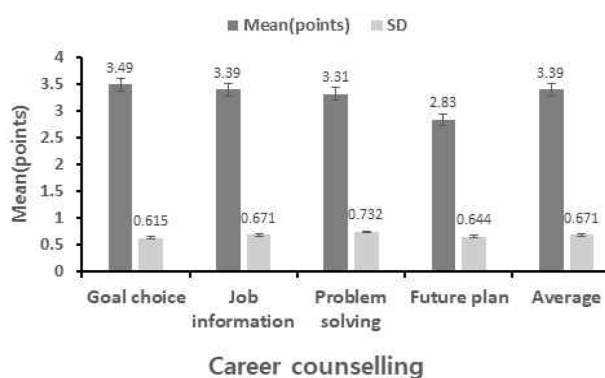


Fig. 1. Mea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ording to career counselling satisfaction.

결정 집단 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서 자기효능감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의사결정 집단 상담이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확신감과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진로상담' 교육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교육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일치성이 있는 결론이라고 판단한다.

진로 및 직업체험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및 직업체험(Career & Work Experience)'의 만족도

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3, Fig. 2에 제시하였다. '진로 및 직업체험'의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목표선택'의 경우에 상집단은 3.54점, 중집단은 3.29점, 하집단은 3.1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 3.44점, 중집단은 3.21점, 하집단은 3.0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집단의 수치가 높아서 중·하집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문제해결'과 '미래계획'의 경우 상집단이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상·중·하집단의 평균치는 상>중>하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서 상·중·하집단의 만족도의 a의 수치는 b 및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진로 및 직업체험'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집단은 낮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 및 직업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Park(2008)은 청소년기의 직업체험학습 참가가 진로계획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체험학습의 참

Table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career & work experience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237	3.54	.618	10.033	.000***	a>b, c
	middle	150	3.29	.600			
	low	34	3.16	.750			
	sum	421	3.42	.636			
Job informations	high	237	3.44	.707	7.808	.000***	a>b, c
	middle	150	3.21	.620			
	low	34	3.07	.839			
	sum	421	3.33	.700			
Problem solving	high	237	3.37	.779	3.617	.028*	a>b, c
	middle	150	3.20	.733			
	low	34	3.07	.902			
	sum	421	3.29	.778			
Future plan	high	237	2.88	.651	4.050	.018*	a>b, c
	middle	150	2.71	.612			
	low	34	2.64	.845			
	sum	421	2.80	.660			
Average	high	237	3.44	.707	7.808	.000***	a>b, c
	middle	150	3.21	.620			
	low	34	3.07	.839			
	sum	421	3.33	.7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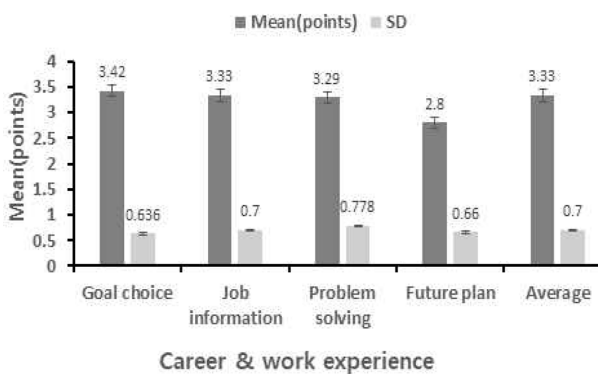


Fig. 2. Avera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career & work experience.

가는 초, 중기 청소년의 진로계획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습득 및 진로선택 요인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특히 초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진로캠프’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캠프(Career camp)’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4, Fig. 3에 제시하였다. ‘진로캠프’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및 ‘문제해결’의 경우에 평가 수치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집단이 중집단보다 수치는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성은 없었으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고 평가한다.

‘미래계획’에서는 집단 순위가 상>중>하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집단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전체 상·중·하집단의 평균치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만족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결론적으로 ‘진로캠프’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과 ‘미래계획’에서는 상집단이 모두 높았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족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Kim & Lee(2014)는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진로캠프’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에서 ‘목표선택’, ‘직업

Table 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career camp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Goal choice	high	127	3.52	.630	2.038	.133
	middle	86	3.37	.588		
	low	16	3.31	.778		
	sum	229	3.45	.628		
Job informations	high	127	3.46	.621	2.244	.108
	middle	86	3.26	.686		
	low	16	3.44	.821		
	sum	229	3.38	.665		
Problem solving	high	127	3.39	.769	1.764	.174
	middle	86	3.20	.639		
	low	16	3.33	.779		
	sum	229	3.32	.726		
Future plan	high	127	2.84	.675	2.481	.086
	middle	86	2.69	.645		
	low	16	3.03	.593		
	sum	229	2.80	.663		
Average	high	127	3.46	.621	2.244	.108
	middle	86	3.26	.686		
	low	16	3.44	.821		
	sum	229	3.38	.66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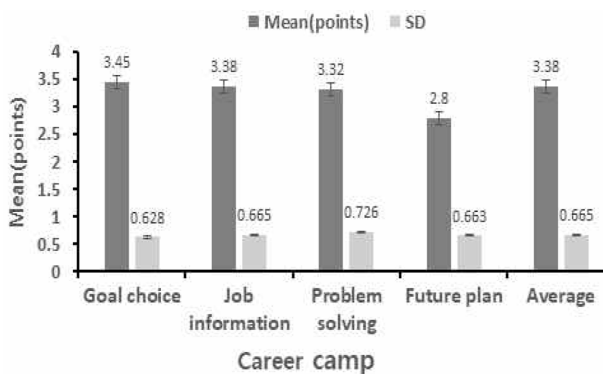


Fig. 3. Avera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career camp.

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서는 상집단이 모두 높았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xperience)’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5, Fig. 4에 제시하였다.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의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

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및 ‘문제해결’의 경우에 평가 수치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집단이 중집단보다 수치는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성은 없었으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고 평가한다.

‘미래계획’에서는 집단순위가 하>상>중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집단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전체 상·중·하집단의 평균치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만족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및 ‘문제해결’에서는 상집단이 높았고, ‘미래계획’에서는 하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족감이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았다.

Kim(2018)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이 초등학교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초등학교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진로성숙 점수를 비교한 결과, 진로성숙 전체 및 진로성숙 하위영역인 자기이해 영역은 1%수준에서, 진로성숙 하위영역인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 영역은 5% 수준에

Table 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experience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Goal choice	high	25	3.71	.629	1.573	.216
	middle	30	3.41	.663		
	low	4	3.50	.241		
	sum	59	3.54	.639		
Job informations	high	25	3.73	.627	2.529	.089
	middle	30	3.36	.647		
	low	4	3.58	.167		
	sum	59	3.53	.638		
Problem solving	high	25	3.49	.740	.200	.819
	middle	30	3.38	.630		
	low	4	3.42	.569		
	sum	59	3.43	.667		
Future plan	high	25	3.09	.762	.957	.390
	middle	30	2.93	.539		
	low	4	3.35	.681		
	sum	59	3.02	.651		
Average	high	25	3.73	.627	2.529	.089
	middle	30	3.36	.647		
	low	4	3.58	.167		
	sum	59	3.53	.638		

* $p < .05$, ** $p < .01$, *** $p < .001$



Fig. 4. Avera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experience.

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성숙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학생들에게 기업자 정신 및 창업체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교육이 좀 더 효과적이라 평가한다.

‘현장견학’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현장 견학(Field trip)’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6, Fig. 5에 제시하였다. ‘현장 견학’의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목표선택’의 상·중·하집단의 수치는 상>중>하 순위로 나타났으며,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2$).

‘직업정보’의 상·중·하집단의 수치는 상>하>중 순위로 나타났으며,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2$). 그러나 하·중집단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미래계획’의 경우 상·중·하집단의 수치는 상>하>중 순위로 나타났으며,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7$). 그러나 하·중집단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문제해결’의 경우는 상·중·하집단의 수치는 하>상>중 순위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의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163$). 하집단의 수치는 상·중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평균 상·중·하집단의 수치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집단의 수치는 중·하집단의 수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2$). 그러나 하·중집단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 ‘목표선택’의 경우 상·중·하집단의 수치에서 a는 b, c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는 유의하

Table 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field trip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145	3.57	.654	6.181	.002**	a>b,c
	middle	104	3.32	.489			
	low	21	3.25	.799			
	sum	270	3.45	.620			
Job informations	high	145	3.51	.670	6.336	.002**	a>c, b
	middle	104	3.21	.637			
	low	21	3.28	.733			
	sum	270	3.37	.675			
Problem solving	high	145	3.40	.775	1.828	.163	-
	middle	104	3.24	.696			
	low	21	3.49	.923			
	sum	270	3.34	.761			
Future plan	high	145	2.97	.671	5.047	.007**	a>c, b
	middle	104	2.72	.543			
	low	21	2.95	.802			
	sum	270	2.87	.646			
Average	high	145	3.51	.670	6.336	.002**	a>c, b
	middle	104	3.21	.637			
	low	21	3.28	.733			
	sum	270	3.37	.67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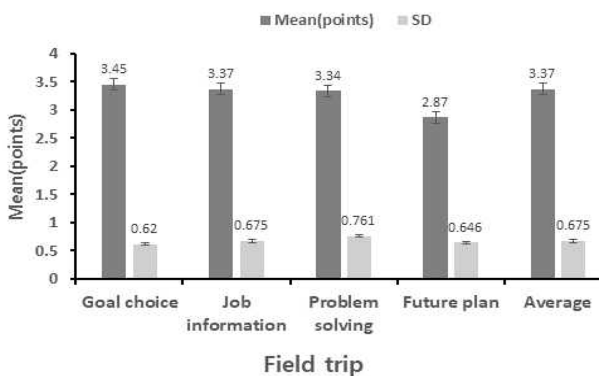


Fig. 5. Avera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field trip.

지 않았다. ‘직업정보’ 및 ‘미래계획’의 경우 a는 c, b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제해결’에서는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체 상·중·하집단의 평균 만족도의 a의 수치는 c 및 b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b와 c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장견학’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에서는 상집단이 유의성이 있게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장견학’에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고 판단한다.

Kim(2017)은 현장견학은 현장 견학 시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의 기회 제공하기, 새로운 상황을 연출해 보기,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참가자 스스로가 자기평가 해보기 등 전공자는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재고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기업체와 학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장 견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면에서는 본 연구와 의견이 일치하는 연구라 평가한다.

대학 혹은 전공 체험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혹은 전공 체험(experience in university or major)’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7, Fig. 6에 제시하였다. ‘대학 혹은 전공 체험’의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목표선택’과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문제해결’과 ‘미래계획’의 경우도 상집단이 높고, 중·하집단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체 평균 수치에서도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서 만족도는 상·중·하에서 a의 수치는 b 및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b와 c의 수

Table 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experience in university or major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200	3.58	.594	9.372	.000***	a>b, c
	middle	105	3.25	.599			
	low	32	3.40	.828			
	sum	337	3.46	.636			
Job informations	high	200	3.49	.626	9.338	.000***	a>b, c
	middle	105	3.18	.643			
	low	32	3.18	.816			
	sum	337	3.36	.667			
Problem solving	high	200	3.47	.655	8.465	.000***	a>b, c
	middle	105	3.13	.734			
	low	32	3.20	.987			
	sum	337	3.34	.733			
Future plan	high	200	2.92	.632	7.552	.001***	a>b, c
	middle	105	2.61	.629			
	low	32	2.71	.897			
	sum	337	2.80	.673			
Average	high	200	3.49	.626	9.338	.000***	a>b, c
	middle	105	3.18	.643			
	low	32	3.18	.816			
	sum	337	3.36	.66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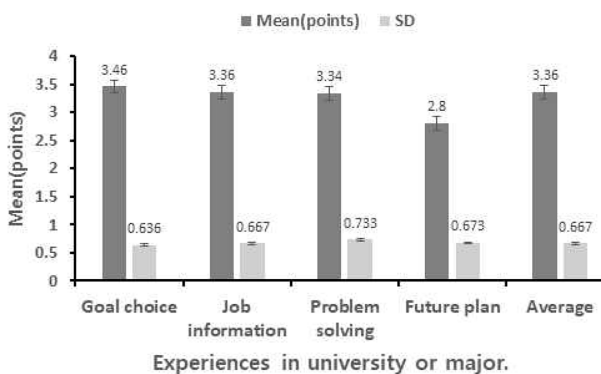


Fig. 6. Avera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experience in university or major.

치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전체 평균 만족도에서도 a의 수치는 b 및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b와 c의 수치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학 혹은 전공 체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혹은 전공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고 판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의적 체험활동(creative experience activity)’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8, Fig. 7에 제시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만족도를 각 항목별로 만족집단인 상집단(a), 중집단(b), 하집단(c)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였다.

‘목표선택’과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의 만족도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문제해결’과 ‘미래계획’의 경우도 상집단의 만족도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 전체 평균치에서도 상집단의 만족도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 대한 만족도는 상·중·하에서 a의 수치는 b 및 c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b와 c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평균 만족도의 수치도 a의 수치가 b 및 c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b와 c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집단이 높게 나타나서 중·하집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고 판단한다.

Lee(2015)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미주신경성 실신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과 동기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Lee & Park(2018)은 조리전공학생들의 분쟁문제를 창의적 과제체험으로 자기효능

Table 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ying level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200	3.56	.626	13.063	.000***	a>b, c
	middle	105	3.30	.615			
	low	32	3.23	.647			
	sum	337	3.43	.638			
Job informations	high	200	3.47	.652	15.155	.000***	a>b, c
	middle	105	3.16	.657			
	low	32	3.14	.742			
	sum	337	3.32	.680			
Problem solving	high	200	3.40	.775	6.092	.002***	a>b, c
	middle	105	3.18	.717			
	low	32	3.14	.764			
	sum	337	3.29	.759			
Future plan	high	200	2.88	.650	4.774	.009***	a>b, c
	middle	105	2.71	.652			
	low	32	2.68	.720			
	sum	337	2.80	.662			
Average	high	200	3.47	.652	15.155	.000***	a>b, c
	middle	105	3.16	.657			
	low	32	3.14	.742			
	sum	337	3.32	.68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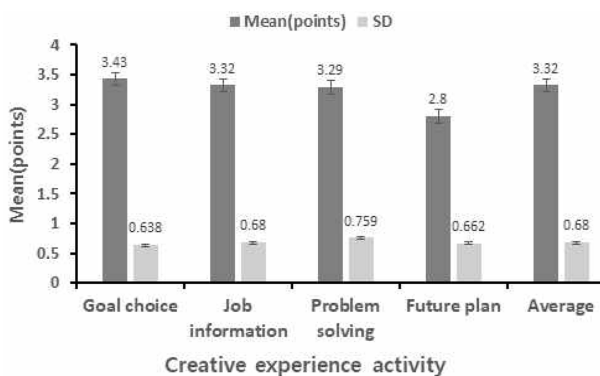


Fig. 7. Avera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감을 높여서 해결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는 창의적 체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본 결과와 유사한 결론이라 판단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형 교육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ckett & Betz(198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Taylor & Betz(198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Jang(2018), Jang et

al.(2017) 및 Kwak et al.(2014)는 중·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져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도 이들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진로체험형 교육에는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의 발굴이 시급하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행사로 대체되는 일회적인 진로 체험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직업 체험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원하는 체험을 선택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필요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Paik et al.(2019a)에 보고한 연구에서 진로북도 지역 고등학생 568명을 임의 선정하여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및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중 (1) 진로상담, (2) 진로 및 직업체험, (3) 진로캠프, (4)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 (5) 현장견학 및 (6) 대학 혹은 전공체험, (7)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활동별 만족도가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진로상담', '진로 및 직업체험', '대학 혹은 전공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상>중>하집단 순이며, 상집단이 중집단 및 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진로캠프' 수업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에서는 상>중>하집단 순으로, 그리고 '직업정보' 및 '문제해결' 항목에서는 상>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상>중>하집단의 수치 간에는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평균치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3)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체험' 수업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에서는 하>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래계획'에서는 하>상>중>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 간에 유의성은 없었다. 평균치는 상>하>중>집단 순이며,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현장견학' 수업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에서는 상>중>하집단 순으로 나타났고, 상집단은 중>하집단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업정보'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는 상>하>중>집단 순이며, 상집단이 중>하집단보다 높아서 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문제해결'에서는 하>상>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 유의성이 없었다. 평균치는 상>하>중>집단 순이며, 상집단은 중>하집단보다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진로교육의 만족도가 높으면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2):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Pub., N.J., pp.1-15.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 Psych.* 25(5): 729-735.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p.21.
 Betz, N.E. and G. Hackett.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re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an and man. *J. Counseling Psych.* 28(5): 399-410.
 Chang, S.M. 2013. Birth and formation of career education in Korea. *J. Career Edu. Res.* Fall conference, Fall : 1-29.

Choi, K.C. 2004. A Study on changes in Korean career education over time. Kyung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70-180.
 Choi, S. and D. Lee, 2017.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career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Examination of the gender difference model. *Edu. Culture Res.* 23(5): 295-318.
 Choi, Y.J. and J.E. Kim. 2012.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related variables and career education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ian J. Edu.* 13(2): 81-106.
 Jang, H.J. 2018.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on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 Career Edu. Res.* 31(1): 21-42.
 Jang, H.J., Y.K. Jung, M.K. Kim, J.Y. You, and J.H. Kim. 2017. 2017. Career education center operation project: Survey on the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 Res. Inst. for Vocat. Education and Training, Sejong. pp.5-10.
 Jeong, M.C.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participation in career education and satisfaction on career education of adolescent. Daegu Haany University Master's thesis. pp.30-32.
 Kang, Y.K. and S.H. Yon. 2017.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J. Career Edu. Res.* 30(1): 1-20.
 Kim, J.H. 2017. The effect of airline service major'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Kyu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Kim, J.U. and T.G. Lee. 2014.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J. Digital Convergence* 14(10): 339-349.
 Kim, K.H. H.J. Yoo, and B.D. Oh, 2014. The effect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Vocat. Edu. Res.* 33(3): 19-36.
 Kwak, M.J., T.D. Kim, and H.M. Kim.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with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iency. *Soc. Sci. Res.* 25(3): 151-174.
 Kim, N.Y. 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on career maturity.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Kim, O. and S.H. Kang. 2010. The effect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 Career Edu. Res.* 24(3): 687-706.
 Kim, S.J., S.M. Kim, H.L. Lee. 2008.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group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self-efficiency of high school students. *Kor. J. Youth Counsel.* 16 (1): 1-14.
 Lee, E.K. and H.S. Lee.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Kor. J. Counsel. Psychother.* 14(1): 109-120.
- Lee, K.H. and H.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 J. Counsel. Psychol.* 12(1): 127-136.
- Lee, M.Y. 2018. The effect of a group program designed to resolve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freshmen on thei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J. Digit. Converg.* 16(10): 485-496.
- Lee, Y.J. and J.H. Park. 2018. The effect of team conflict in creative experience class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task value –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studying cooking major. *J. Hotel & Resort* 17(3): 253-276.
- Lee, Y.O. 2015. The effect of art therapy combined with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on academic self - regulated efficacy, self-confidence and motivation control of vagal neurotic. *J. Arts Psychother.* 11(4): 187-211.
- Lim, E. 2005. Analysis of school career education effect based on multilayer model (HLM). *First Kor. Edu. Vocat. Panel Seminar* J. 2005(1)639-661.
- Ministry of Education. 2016. The seco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Seoul, p.7-9.
- Park, G.Y. 2008. The effect of work-based experiential learning on career plan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dolescence. *J. Future Orient. Youth Soc.* 5(3): 115-130.
- Paik, J.K., S.H. Cho, and J.H. Chun. 2019a.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counselling on career decision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J. Naturopathy* 8(1): 11-20.
- Paik, J.K., E.Y. Kim, and J.H. Chun. 2019b. Effects of career education and psychological counselling satisfaction on career self-efficacy. *J. Naturopathy* 8(1): 29-39.
- Song, I.B. and H.Y. Kang. 2016.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for ju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J. Kor. Cont. Ass.* 16(10): 140-149.
- Taylor, K.M. and N.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Vocat. Behavior* 2(1): 63-81.